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근본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불법 공매도 더이상 방지하면
주식시장 공정가격 형성 어려워”
현장중심 행정·정책 등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보다 철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

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찾았던 신촌 탄우홀 미팅, 대구 철성시장 방문,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금지, 오염수 과담에 따른 수산시장 상인들의 정부 대책과 외식업계 외국인력 도입 요청 등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 개정과 고용세습, 채용 감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내부통제시스템 원점서 전면 재검토하라”

금감원, 책임자들과 간담회
올 증권사 금융사고 668억 ‘역대최고’
위법 방조·은폐, 소홀한 책임 물을 것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까지 소집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해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36개 국내 증권사의 감사와 준법감시인, CRO 등 내부통제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및 횡령까지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금융사고 예방과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14건, 668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금융사고 규모 143억원을 크게 웃돈다. 사금융알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졌다.

황 부원장보는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누락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행위를 방조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감사와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와 기업금융 등 IB 부문에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만큼 IB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황 부원장보는 “최근 IB 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IB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CFD와 영풍제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손실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환율 상승 영향... 수출물가 4개월 연속 ↑

한은, 10월 수출입물가지수
원화기준 올랐지만 계약기준 하락

수출물가지수가 4개월째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환율효과가 나타난 덕분이다. 원화기준으로는 상승했지만, 계약기준으로는 하락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회복세를 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119.62) 대비 0.5% 상승한 120.17로 집계됐다. 수출물가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상승했다.

수출물가가 상승한 건 환율이 오른 영향이 컸다. 원화기준으로는 0.5% 상승했지만, 계약통화기준으로는 1.0% 하락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50.69원으로 전월(1329.47원) 대비 1.6% 상승했다.

지난달 공산품의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4.9%), 제1차금속제품(-0.8%)이 하락했지만, 반도체가속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6%)와 운송장비(1.7%)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농림수산물도 과일(-8.0%) 등을 중심으로 0.7%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0.38로 전월(139.71) 대비 0.5%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소폭하락했음에도 환율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9.75달러로 전월(93.25달러)와 비교해 3.8% 내렸다.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0.5% 상승했지만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5.6% 하락했다.

수입물가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중간재의 경우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0%), 화학제품(1.1%)이 오르며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원재료는 광산품(-0.5%)을 중심으로 0.4%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4분기 ‘해운 비수기’... 시황반등 어려워

» 1면 ‘해운업 불황에 LX’서 계속

하림그룹이 HMM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굴지의 컨테이너선사와 벌크선사를 가지는 기업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인수자들의 의지와 바람과는 달리 해운 시황은 밝지 않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1%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6.4% 급감한 954억원이다. 타

글로벌 선사 대비 견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4분기는 해운 비수기인만큼 시황 반등을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어떤 곳이든 운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이용해 HMM을 품게 될 텐데 해운운임이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승자의 저주’는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기에 LX그룹까지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찰 가능성이 커질



HMM의 초대형 컨선 알헤시라스호. /HMM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연체율·대형금고 등에 검사역량 집중”

» 1면 ‘바리·부실 얼룩 새미’서 계속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 금고지도·감독 기능을 보강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고연체율 등의 사유로 경영개선

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나선다.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최대 0.2%까지 확대한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